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격화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NEWS Vol. 35

PSBB
CORONA - 19
VIRUS

VIRUS
PANDEMIC
PSBB

CORONA - 19

CORONA - 19

KOREA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KOGA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GA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반대 시위 격화 ... 물대포 · 최루탄 동원

인도네시아에서 노동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옵니버스법’ 반대 시위가 일부 지역에서 격화되자 경찰이 물대포와 고무탄, 최루탄을 동원했다.

8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가 5일 밤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제·개정하는 905쪽 분량 옵니버스법을 통과시키자 노동자·학생·시민운동가들이 사흘 연속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옵니버스법을 ‘고용창출법’이라 부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감축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외주 업무범위 제한 삭제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



▲ 인니 경찰, 8일 자카르타 시위대에 최루탄·물대포 동원(AP=연합뉴스)

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반발한다.

환경단체들도 투자 규제 완화로 삼림 등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시위대가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으로 집결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해산시키려 했다.

경찰은 대통령궁과 의회 주변 대규모 집결을 막기 위해

브카시 등 수도권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고, 대통령궁과 이어지는 자카르타 시내 도로도 곳곳을 차단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 있지 않고, 경작지 개발사업을 시작한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을 방문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도 시위대 해산

을 위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수마트라섬 메단시 의사당 앞에서는 시위대가 돌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했다.

이들 도시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1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열렸고, 북말루쿠에서는 ‘옵니버스법 통과’는 국회의 사망과 같다’며 시위대가 관을 들고 장례식을 열었다.

앞서 이틀간 시위에서 400명이 체포됐고, 학생 두 명이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입원했다.

시위 첫날인 6일 서부 자바주 반둥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7일에는 수마트라섬 팔렘방에서 칼과 같은 흉기와 돌, 화염병을 소

지한 시위대 180명 이상이 체포됐다.

같은날 중부 자바 스마랑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돌과 유리병, 폭죽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자카르타 외곽 산업단지가 있는 치카랑에서는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 시위대 최소 6명이 다쳤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SPI)이 예고한 전국단위 시위 마지막 날이라서 더 격화될 것”이라며 “시위대 집결 예상지 접근을 자제하고, 공장·기업 운영자는 경찰서와 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확보에 신경 써달라”고 국민들에게 공지했다. [연합뉴스]

의회, 인지세법 개정안 통과... 인지 액면가 1만 루피아로 인상,단일화

경제계, 일자리창출 옵니버스법 관련 세칙 빠르게 제정해야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5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옵니버스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뿌리부미 경영자협회(HIPPI)는 세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자 뎀보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의 살만 자카르타지부장은 “우선 대통령령과 각 장관령으로 세칙을 제정해 옵니

버스법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법 제 85조에서 ‘세칙을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살만 지부장은 “옵니버스법이 기업과 자본가를 우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세칙 준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노조가 항의 시위와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

(KSPI)의 카하루 차후요노 임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입법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바섬 산업단지 2곳에서 동법의 항의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자 23명이 체포되었다.

반뜰주 경찰 대변인은 7일, 6일 발생한 시위에 참가했던 노동자 총 14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서부자바주 경찰은 반동의 공업단지와 대학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총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9월 29일 의회 본회의에서 인지세법 ‘1985년 제13호’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 인지가격을 기존의 3,000루피아와 6,000루피아 두 종류에서 1만 루피아로 인상 및 통일, ◇ 과세 대상이 되는 영수증과 계약서 등의 계약 금액 하한을 기존의 10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로 인상, ◇ 과세 문서에 전자 문서를 추가하고 전자 우표 사용 규정, ◇

납세 의무 위반과 인지 위조 등에 대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명시 등이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인지세법은 1986년 1월 1일 시행된 뒤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세수 극대화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하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규정해 납세 의식 향상과 위조인지 제조·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회 제11위원회의 디또 위원장은 “복지정의당(PKS)만 인지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PK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인지 가격 인상은 구매력 하락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라고 언급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정부, 연말까지 식품 등 33개 분야 관세 면제... 제조업 지원 일환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과 공산품 등의 33개 분야 원·반제품의 수입 관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9월 21일자로 재무장관령 '2020년 제134호'를 제정하고 22일에 발효했다. 기업이 지불하는 수입 관세를 정부가 대납한다. 적용 대상은 ▽ 즉석면, ▽

감미료, ▽ 타이어, ▽ 전자제품·부품, ▽ 광섬유 케이블, ▽ 통신기기, ▽ 휴대전화 등 33개 분야이다. 손 소독액과 약품, 의료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필요한 분야도 포함됐다. 하지만 (1)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 (2)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필요 사양을 충족할 수 없음, (3)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함 등

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무부 관세국에 신청한 후 통관 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시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에 당국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승인 인증서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9월 30일자 끈판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정책기구(BFK)의 페브리오 기관장은 "코로나19 재난 속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우대 조치 일환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지원책으로 수입시 선불 소득세, 법인세 일부 납세 유예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예산에서 코로나19 경제 대응책인 '국가경제부흥(PEN) 프로그램'에 695조 2,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9월 28일 시점의 예산 집행률은 44%이다. 예산 중 '경제활동 부양책'이 120조 6,100억 루피아를 차지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파크랜드 봉제공장,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



▲파크랜드 로고

한국기업 파크랜드가 중국에 있는 봉제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은 패션기업 파크랜드가 자사인 세진어페럴 중국 다렌



▲파크랜드 중부자바주 즈빠라 공장 전경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공장을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빠띠(Pati)로 생산기지를 옮긴다고 밝혔다.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BKPM청장이 LG화학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투자 협상 등 한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다.

파크랜드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단가를 맞추기 어렵자,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흐릴 BKPM청장은 세진어

페럴이 3,500달러를 투자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신규 일자리가 4천여개 만들어지고, 자국의 수출 실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진어페럴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해 BKPM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세진어페럴이 중국 공장에서 이전할 중고 기계와 장비 수입 허가, 공장 부지 인허가, 외국인 인력 출입허가, 세제혜택 등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노동장관, 코로나19 여파 기업가·근로자 대상 새로운 지원...고용기회 확대 목표



인도네시아 이다 파우리아 노동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가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및 고용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다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또한 공공시설 건설 등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수 감소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일까지 기업가 3만 9,700명과 노동자 2만 1,8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의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9월 29일 자카르타와 근접한 보고르군·시, 데팍시, 브까시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을 10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회활동 규제 조치는 각 군·시 내 감염 수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된다. 9월 30일 시점의 서부자바주 모든 군·시의 상점과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

한편, 자카르타주도 PSBB를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

겠다고 앞서 밝혔다.

루훗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자카르타 지역은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통제되기 시작했으나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지적하며 PSBB 자동연장 결정에 동의했다.



서부자바주 보고르군,시 등 5개 지자체 PSBB 10월 27일까지 연장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입지·설비 보조금

- ✓ 자가의 9~50%
- ✓ 설비금액의 6~34% (국비 100억 한도)

세제지원

- ✓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 ✓ 관세 감면: 설비도입시 최대 100%

인력 고용 지원

-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고용보조금

- ✓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년 (최대 100명 한도)

스마트공장 및 R&D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 등)
-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지재권 지원

- ✓ 특허청 IP전략 지원사업 우대지원

금융 지원

-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 국내사업장 시설자금 보증·보험지원

구조조정컨설팅

- ✓ 구조조정컨설팅 알선 및 비용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한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021-574-1522(권 세영 부관장) | seyoung@kotra.or.kr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 구조조정모범 제안 ② 축소대형 ③ 청산대형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형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소비용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 연중상시(컨설팅 운영 완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로나 부실 대응?...조코위 대통령 “봉쇄는 국민에 피해” 반박 “수천만 명 생계 희생 우려” ... 신규 확진자 최근 4천명대로 증가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일 현지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

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 처리는 나쁘지 않았다”며 “사실 꽤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7

천만명이며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29만9천506명과 1만1천55명(이상 월드오미터 기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부터 8주 동안 준봉쇄 조치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을 시행했다가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풀었다.

이후 감염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건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초·중순 1천~2천명대에서 최근 4천명대로 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봉쇄 조치는 국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경제 희생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경제를

희생하는 것은 수천만 명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서는 논쟁이나 소란이 발생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내년 말까지 국민 가운데 1억6천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8월 11일부터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한국 제넥신의 백신 ‘GX-19’의 2상 시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종교부, 기업 매출별로 할랄 인증서 발행 수수료 설정 제안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자이넷 파우히 차관은 할랄인증청(BPJPH)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기업의 매출 등에 따라 0~489만 루피아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제안했다.

현지 언론 9월 29일자 리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할랄 인증 유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했지만, 인증 발급 수수료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자이넷 차관은 “종교부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기업으로 나눈 다음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재무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종교부는 국내 사업 기업 중 연간 매출이 10억 루피아 미



만의 중소기업은 수수료를 면제, 10억 루피아 이상의 기업은 매출에 따라 163만~407만 5,000 루피아에서 설정하며, 해외 사업 기업은 일괄적으로 489만 루피아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열린 의회 제8위원회와 자이나토 차관 등 실무그룹 회의에서 의회 제8위원회의 안도리 위원장은 “재무장관령을 통해 즉시 발행 수수료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해야 한다.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증 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통부에서만 319명 감염... 정부부처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많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에서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교통부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는 319명에 달했다. 관공서와 사무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많았다. 같은 달 7일 시점에서 229명이 늘었다.

9월 30일 기준 감염자 수는 교통부에 이어 보건부가 262명, 국방부가 147명으로 중앙부처가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패방지위원회(KPK)가 116명, 보건부의

식약청(BPOM)이 89명이었다. BPOM은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신약으로 승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국내 미디어 기업으로 8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카르타경제신문

경제조정장관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한 대통령령 조만간 발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예방접종에 관한 대통령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펨보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틀랑가 경제조

정장관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관한 대통령령 및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아이틀랑가 장관은 “정부는 전국 규모의 백신 접종을 위

해 올해 최대 3조 루피아를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산 18조 루피아를 추가 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 국가경제회복위원회에 2주 이내에 백신 접종



▲ 인도네시아 아이틀랑가 하르파르도 경제조정장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인니 9월 제조업 PMI 47.2... 전월치 하회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켓(IHS Markit)이 1일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7.2으로 8월의 50.8에서 3.6포인트 하락했다. 8월 소폭 회복했지만 9월에 다시 떨어졌다. HIS마켓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해 9월 중순에 자카르타가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을 다시 강화한 점이 제조 및 생산 활동에 타격을 줬다. 이 회사의 버나드 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공장의 생산 악화가 PMI 하락에 영향을 줬다. PMI는 8월에 소폭 상승했지만, 3분기(7~9월) 말에 판매 및 생산이 크게 하락했다” 라고 설명했다.

9월 신규 주문 건수가 다시 감소하고 매출도 떨어졌다.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단행해 고용은 7개월 연속 축소, 해고 속도도 가속화했다. 기업이 비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구매 활동도 축소하고 재고가 감소했다. 2일 드퓍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실파 부회장(국제 관계 담당)은 9월 PMI 하락에 대해 “PSBB 재도입으로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침체한 것이 영향을 줬다” 고 말하며 “PSBB 규제 완화시 소비가 늘겠지만 중산층이 최대한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산업부, 위생규율 위반 등으로 제조 147개사 조업 허가 권한 박탈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확대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관련 위생규율을 위반한 147개사의 제조 생산활동 권한을 박탈했다.

정부는 9월 20일 시점 전국 대형·중견기업 3만 3,000개사 중 1만 8,101개사에 PSBB에도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 활동 운영 허용(IOMKI)’ 을 제공했다.

1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금속·기계·수



송기기·전자기기(ILMATE) 국의 파우피엑 국장은 “위생규율 위반 등으로 총 147개사의 IOMKI 권한을 박탈했다” 라고 말하며 “IOMKI이 발행된 1만 8101개사 가운데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제품 제조업체는 5,613개사이다. 이 가운데 50개사의 권한을 박탈했다” 라고 설명했다.

해당 50개사 종업원 수는 총 149만명에 달한다. 그 외 박탈된 업종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4월 조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제조업체는 주말마다 정기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보고를 3회 게을리한 기업은 허가를 박탈한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무협-코엑스, 11월 한달간

‘인도네시아 수출지원 마케팅’ 진행



—중소기업 대상, 기존 자카르타 프리미엄 소비재전 대체한 온라인 수출 솔루션 제공

—온라인 수출상담회, 현지 인플루언서 홍보,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 등 동시 지원

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코엑스(사장 이동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신남방 국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수출 마케팅 솔루션을 구축,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선다.

2018년부터 매년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 300여개사와 함께 대규모 인도네시아 소비재전을 개최해오던 무역협회와 코엑스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존 개최해오던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Jakarta International Premium Products Fair)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윈스탑 온라인 수출 솔루션을 제공한다.

11월 한달간 개최될 ‘인도네시아 수출 지원기간’ 에는

국내 약 144개 소비재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양질의 현지 유티크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및 대규모 홍보를 통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에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온라인 바이어화상 상담회를 통한 거래 알선은 물론, 일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B2B 전문 대표 온라인 유통망인 Trade Korea 입점 지원을 통한 인도네시아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또한 현지 B2C 온라인 유통망 플랫폼인 ‘쇼피’(Shopee) 내 크로스보더(역직구) 판매 채널 입점 지원, 현지 유명인플루언서들을 활용 및 유명 쇼핑몰 내 현지 소비자 체험전을 지원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

주최측은 “무역협회의 글로벌 무역 인프라 및 전문성과 인니지역에서 다년간 해외 전시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온 코엑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수출 솔루션을 제공할 것” 이고 밝혔다.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1년(辛丑年)을 준비하세요!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CORONA-19 함께 극복합시다 !

LUMICA

<http://www.lumica.co.jp>

POWER 6 (CLO2)로 나만의 안전공간 을 만들자!

POWER 6(CLO2) 주변
2~3m이내 바이러스 퇴치기능

사용방법



약간의 힘을 주면
딱 소리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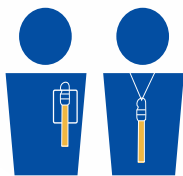


흔들어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약 2~3주정도 사용하면
다시 흰색으로
바뀝니다.



Rp 250,000
1pack: 10ea

활용방법



호주머니나
목걸이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연필꽂이등에
꽂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 냄새(악취) 제거

■ 사용기간

약 2~3주 사용가능하며
햇빛, 바림이 부는 곳 : 2주
그늘진 곳 : 3주 가능

■ 예방 효과

16~20M² COVER (전후좌우 2미터)

■ 이런 곳에 효과 있습니다

1. 끈에 달아 호주머니나 목에 착용
2. 현지인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
3. 사무실, 병원 입원실
4. 집안 도우미와 공유하는 집안 거실
5. 식당의 각 테이블
6. 기타 코로나에 취약한 장소
7. 세균에 의한 냄새 제거 탁월
화장실, 쓰레기장, 신발장, 낚시 박스, 애완동물

■ 제품구성 및 특징

- 1, 1PACK : 10EA
- 2, 미국 FDA 기준 CLO2 기준 0.05ppm
LUMICA : **0.03ppm**

LUMICA LUMICA CORPORATION

- JAPAN / LUMICA CORPORATION
- SPAIN / LUMICA CORPORATION SUCURSAL EN ESPANA
- USA / LUMICA USA, INC
- CHINA / LUMICA LUMINOUS
- INDONESIA / PT. LUMICA INDONESIA

구매처

땅그랑, 특판 : 0815 1066 5868 (MRS.CHA)
자 카 르 타 : 0813 8506 6645 (MS.HESKY)
스 마 랑 : 0813 2710 4200 (MS.SUSI)



일자리 창출법 반대 집회, 코로나 감염 촉발 가능



지난 10일 자카르타 글로브지에 따르면 최근 새로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등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야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최근 집회에서 1~2주 안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도니 모나르도 코비드-19 특별대책팀장은 여러 지방에서 다수의 시위대가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감염자들이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토요일 현재 11,76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29,000명에 가까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확진자 8만5500명과 사망자 1,871명을 내는 등 대우행의 타격을 받고 있다. 토요일 확진자 1,259명을 포함해 하루 평균 4자리수를 기록한 유일한 지방이다. 동자바에서는 7일 평균 확진자 300명이 발생하여 누적 46,715명, 코비드-19 누적

사망자가 3,404명으로 자카르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서자바는 확진자가 지난 10일 평균 483명으로 중부자바를 모두 앞질러 누적 27,031명을 차지했다. 중부 자바는 1,49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6,083명이 사망해 4위에 올라 있다. 수마트라의 리아우와 서수마트라 두 주는 상위 4개 주와 별개로 일일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모두 지금까지 일일 확진자가 평균 200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미 남부 술라웨시, 남부 칼리만탄, 북부 수마트라, 발리와 같은 다른 핫스팟에서 일일 확진자수를 상회하고 있다. 리아우는 8월 말까지 누적 확진자가 1,8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10월 8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9,661명으로 급증했다. 석유가 풍부한 지방은 현재 최악의 영향을 받는 지방 중 10위권 안에 들었고, 서수마트라는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한편 발리는 10일 131명의 확진자를 추가해 9번째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일간 일평균 115명으로 9월 평균 122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누적 확진자 1만6500여 명을 보유한 남술라웨시(South Sulawesi)는 8일 213명을 포함해 최근 나흘간 하루 평균 3자리수로 복귀했다. 최근 북수마트라(1만1247명)와 남칼리만탄(1만950명)에서 각각 월평균 일확진자 93명과 60명으로 신규 확진 사례가 완만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동칼리만탄은 최근 열흘간 평균 182명으로 9월 평균 147명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항공화물업계, 연말 수출입 증가 예상... 항공화물선 부족 우려



인도네시아 항공화물운송회사와 항공화물 대리점이 가입되어 있는 인도네시아항공화물대리점연합(ICAC)은 연말 수출입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선 항공 화물선이 부족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코로나19)로 항공사들이 국제선 감편과 운항을 중단해 화물 수송 능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ICAC의 에이드 대표는 “항공화물 운송의 수급 균형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10월 들어 수출입 화

물량이 많아져 운송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운송 비용이 상승할 것” 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화물 운송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개월 간의 국제 항공 화물 운임은 안정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30~40%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항공협회(IN-ACA) 대변 회장은 “국내 항공업체는 수출입 화물의 수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여객기 좌석을 분리해 화물기로 사용하기 위해선 내부구조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레몬과 멜론

나이 탓인지 어떤 물건이나 이름, 단어가 가물가물하면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독립영화제로 유명한 선댄스 영화제를 만든 사람, 로버트 레드포드는 입에 돌기만 하고 대신에 해리슨 포드가 생각난다. 포드 2자가 같기는 하다. 내 성을 말할 때 초콜릿의 초(Cho)라고 하면 통한다. 그런데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가 카카오인지 코코아인지 모르겠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은 건가? 조선말 하와이로 이민 갔던 선조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다 옮긴 곳이 파인애플 농장이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인애플과 애플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외양이며 맛도 천양지차인데 여전히 의문이다. 유명한 파인애플 가공 브랜드 Dole 공장은 하와이에 있다. 이게 입에 뱅뱅 돌기만 하고 안 떠오른다. 그런데 이걸 어찌 읽어? 돌? 도레? 맹물을 데워 마시는데 물맛이 별로여서 향이 나는 과일 한 조각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양 볼에서는 벌써 신 침이 번져 나오는데 melon이 떠오르면서 노오란 lemon이 생각나지 않는다. 왜 멜론인가 말이다. 단어에서 L과 M이 헷갈린 것이다. 음운도치가 일어나기는 했다. 레몬을 살 때 자몽을 사야겠다. 경중경중 썰어서 꿀단지에 재워 몇 달을 두었다가 두어 쪽씩 끓는 물에 넣어 차로 마셔야지..... 20년 전쯤엔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자몽을 사다가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꿀에 찍어 우걱우걱 먹었던 그 맛, 알갱이가 툭툭 터지는 그 쓴 맛과 쓴 맛을 잡아주는 꿀은 입맛을 살려주었다. 자리 값으로 비싸게 받아야겠지만 큰 잔에 한 조각 넣어 주는 자몽 차는 인색의 대표선수다. 포도와는 달은 점이 하나도 없는 자몽(pomelo)을 왜 grape(포도) fruit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그릇인 나는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답답함을 보면 참지를 못해, 나서는 때가 어찌다 있다. 불편한 것은 참아도 부당한 것엔 참기 어렵기

는 하다. 그래도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을 맡으면 밀고 나간다. 그래서 그것도 카리스마(charisma)에 해당하는지 나를 잘 못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그래 그거, 시원시원함. 추진력. 카리스마가, 또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입에 뱅뱅 돌기만 한다. 우연히 떠오른 생각도 이전의 어떤 경험이나 학습 없이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대단한 발견이거나 문제의 해결책이 될 때가 있다. 행운이다. 소음 속에서 하나 건지는 경우도 있고 덜 갠 잠에서 비몽사몽간에 얻는 경우도 있다. 세렌디피티처럼 찰나에 깨달으면 돈오(頓悟)라 할 것이다. 가까운 곳엔 걸어 다니고 멀리 갈 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술자리에 갈 땐 택시를 탄다. 그래서 차를 세워두면 며칠씩 돌 때가 있다. 지하주차장엔 오랜만에 나오면 어디에 대었는지 가물가물하다. 헛집어 아래위층을 오갈 때도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1층, 2층을 구분해 적어 놓은 통에 키를 두고 나갈 때 확인한다. 이게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대형주차장에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병이다. 저마다 다른 재주가 있다. 사람의 이름과 인상정보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편하기는 하다. 나는 그걸 잘 못한다.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 나름대로 메모를 해둔다. 그 사람의 인상이나 특징, 누구 닮은 사람 같다니 등을 적어 둔다. 안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만난 사람이라고 적어 두긴 한다. 그래도 잘 기억하지를 못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정치나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명함에 메모를 해 두고도 정작 필요할 때면 명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찾을 땐 없다가 나중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쉽게 나온다. 메모를 잘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필기만 열심히 해두고, 또 사진만 바지런히 찍어 두고는 다시 보지



조기조 박사

않는 것과 같다. 이전 앵이 있어 저장해 두기는 한다. 소는 배불리 먹고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시킨다. 밥동이 하나 뿐이라서 소처럼 먹은 것을 되새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뇌는 하드 디스크처럼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되새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해리슨 포드에게 멜론을 깎아주고 로버트 레드포드에게 레몬 차를 한 잔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갔던 카페나 식당, 저번에 본 영화의 이름이 눈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 카페에서 만나자 하면 위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이름을 몰라 검색하는데 애를 먹는다. 영화의 스토리나 주요 장면은 생각하는데 제목은 모르겠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찾지 못한다. 가사 한 두 줄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즐겁게 보았어도 콘서트의 지휘자나 연주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곡목은 아예 기대할 것이 못된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산중의 스키장으로 옮긴 시향(市響)을 보러갔다가 한여름 밤의 별빛 소나기를 흠뻑 맞고는 21발의 포성과 포연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그 감동의 종소리와 박동은 아직도 생생한데 그 서곡(序曲)이 몇 년이었던가? 1882, 1812? 근대 내 나이는 몇이더라?

조기조(曹基祚 Kyo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도네시아 소매업 10만명 실직 위기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세입자협회(Hippind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회원사 90개사, 근로자 10만명이상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의 부디하르조 회장은 “5~7월 회원사의 매출은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약 80% 줄었다.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150만명이 급여 삭감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협회는 인도네시아쇼핑센터경영자협회(APPBI)와 함께 중앙·지방정부에 가맹기업의 법인세와 토지·건물세(PBB), 광고세 면제와 직원들 최저임금의 50%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12.3% 감소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8월 소매 판매도 10.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대구 화섬 직물 수출의 비상 구 역할을 담당해 온 터키 시장 기능을 잃고 적막강산에 쌓여있어 연내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업계 일각에서 중국산 생지를 컨테이너로 대량 들여와 대구에서 염색 가공해 할값에 공급하는 무차별 덤핑 장사만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대구 화섬 산업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주 어렵게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을 받아 귀국 후 자가 격리 면제 조건부로 코로나 창궐 이후 직물 업계 최초로 터키를 방문해 일주일간 직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을 벌인 후 귀국한 대구 화섬 직물 업체 여성 기업인(SK텍스 정현분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터키 고정 거래선의 오더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며 참담한 시장 환경을 본지에 가감 없이 털어냈다.

터키를 주력 시장으로 십 년 가까이 거래해 온 정현분 SK텍스 대표는 터키에 원단 도매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스탄불 내 오스만베이, 부르사, 빠티 지역 상가 전제가 파리 날리듯 쓸렁한 채 많은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현지 상황의 심각함을 전달했다.

또 원단 도매상인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며 실상을 공개했다.

예년 같으면 평소 이란 상인과 러시아 상인을 비롯 해외 거래선들이 북적거린 것과 달리 “원단 도매상가 자체가 죽음의 거리처럼 조용해 코로나 사태가 터키에도 어느 정도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현상을 소개했다.

터키 시장 코로나로 ‘묵사발’

대구 직물 용감한 여성 기업인 이스탄불 방문기
 이스탄불 원단 밀집 상가 빈 점포 수도룩 재고 산더미
 평소 북적거린 이란 · 러시아 상인 자취 감춰 적막강산
 터키 봉제공장 상당수 올스톱 · 연내 회복 불능
 중국산 생지 한국서 가공 덤핑 수출망 증가



터키 이스탄불 오스만베이의 원단 상가의 한 도매상 창고의 관여를 기다리고 있는 원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 사장이 “원단 상가가 죽어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의 대형 봉제공장들을 둘러본 결과 터키 내수는 물론 유럽 지역에 수출 봉제 공장

들이 거의 문을 닫아 원단 상가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들 원단 도매상가 밀집 지

역에 자금력이 약한 상인들은 벌써 철수했으며 “그나마 부채 없이 자기 자본이 있는 상인들만 문을 열고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따라서 “터키 · 이스탄불 오스만베이와 부르사, 빠티 지역 인근의 봉제공장이 제대로 가동돼야 원단 상가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 최소 연말까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경영하는 대구 소재 화섬 직물 업체 SK텍스는 제직과 수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중견 업체이며 터키 시장에 10여 년간 공을 들여 대구에서 터키 수출 전문 업체로 정평이 나 있다.

정 사장은 코로나 사태로 발이 묶여 8개월 만에 터키 출장을 가서 일주일간 머물며 “겨우 컨테이너 한 개 물량의 오더를 받는데 그쳤다”며 “평소의 10분 1수준의 오더를 받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정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자신의 제직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하지 않고 연말까지 풀가동해 재고를 비축할 생각”이라고 향후 시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따라서 대구화섬 직물의 주력 시장인 터키 시장이 코로나 위기도 앞으로는 연말 이전에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역 섬유 업계의 고통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롤러코스터 탄 아웃도어, 10월부터 다시 상승세 9월 한달 뒷걸음치다 추석연휴 계기로 반등

“7~8월 비수기를 지나 9월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3~4일부터 매출이 늘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뽀글이(플리스) 자켓과 간절기 패딩이 많이 팔렸다.” (노스페이스 문정로데오점)

신소희 노스페이스 문정로데오점장은 “3040부터 5060까지 고객 폭이 넓은데 올해 봄부터 젊은 고객이 더 늘었다. 추석 연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판매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아웃도어업계는 비교적 선방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4~6월 이후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월 또 다시 반등 효과가 나타

나면서 아웃도어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업계가 집계한 3분기 누적 실적에 따르면 아웃도어 상위 5개 브랜드 중 MZ세대 트렌드에 맞게 브랜드 색깔이 뚜렷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유일하게 10% 이상 성장 중이다.

노스페이스와 K2, 네파, 블랙야크 매출은 전년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패션 상품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상위 3곳(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K2)은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4월말부터 7월까지 급성장했다.

8월은 브랜드에 따라 매출 등락폭이 엇갈렸다. 9월은 2.5



▲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다양한 등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아웃도어 업종은 다른 패션 상품군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 사진=mael balland, pexels.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노스페이스(-2.4%)와 2위 디스커버리(-17.5%)도 감소세를 보였다.

아웃도어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봄철 등산인구가 감소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4월말 이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매출

이 증가했다. 다양한 연령층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 문화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집을 벗어나면서 혼산(혼자 등산)과 둘산(연인)족이 늘어났다. 이 영향으로 젊은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레깅스와 요가복, 스포츠 의류 등으로 아웃도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아웃도어업계는 10월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또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상위 5곳은 각각 약진했다. 디스커버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76.1%로 폭풍 신장했다. 노스페이스와 K2도 각각 29.6%, 31.1%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성장세를 이끄는 브랜드들은 참여형 액티비티와 착한소비, 크루 문화를 중시하는 2030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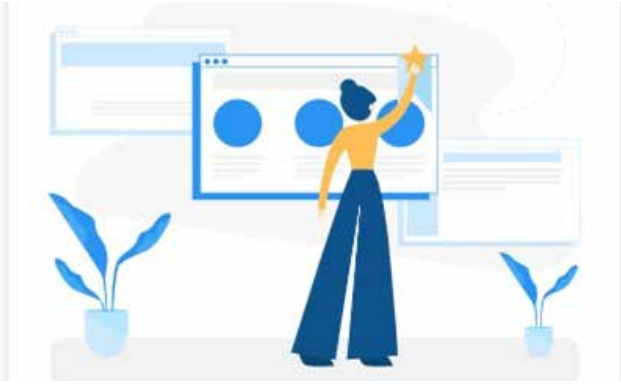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제조업은 실업자 급증... IT산업은 전문인력 부족

팬데믹 시작 후 179만명 일자리 잃어



인도네시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회가 되고 있다고 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 중 82.85%가 전염병으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준봉채 조치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실시해 비필수 업종의 가동을 중단시킴에 따라 5월 27일 기준으로 179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잡스트리트(JobStreet)는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노동자, 구직자, 채용담당자 등 5천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숙박, 관광, 섬유·봉제, 식음료, 건축 등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43%는 PSBB 시작 후 임금이 최대 30% 깎였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35%는 해고됐고, 19%는 무급휴가를 강요당하는 등 54%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

다. 잡스트리트는 올해 말까지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팬데믹 속에서도 제조업, 종합무역업과 도매업, 소매업, 금융서비스업, IT산업 등은 새로운 인력을 계속 찾고 있다.

잡스트리트 자료에 따르면, 구인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슈퍼바이저, 생산관리자, 창고관리자 및 IT기술자 등으로 일할 인력으로 총 5,273명을 찾고 있다. 이어 종합무역과 도매업에 2,703명, 소매업 2,487명, IT산업 2,232명 등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IT기술자, IT지원인력, 프로그래머, 웹개발자 등 IT기술을 가진 인력은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창고업, IT산업 등 5개 분야 모두에서 찾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 담당자 누르마 미다안띠 국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팬데믹 속에서도 IT기술 관련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용과 창업의 기회가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도네시아의 세법 체계



김재훈 대표

- Undang Undang (본법)
- Peraturan Pemerintah (정부령)
- Keputusan peresiden (대통령 규정)
- Keputusan Menteri keuangan (재무부장관 규정)
- Peraturan menteri Keuangan (재무부 장관령)
- Keputusan Dirjen Pajak (국세청장 규정)
- Peraturan Dirjen Pajak (국세청장 령)
- Surat Edaran Dirjen Pajak (국세청 내규)

법률은 인니어로 Undang Undang 으로 보통 UU No. 및 년도로 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UU No. 36 /2008 이라고 하면 2008년에 공포된 법률 제 36호로 해석한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경 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법률안에 이러한 규정은 재무부장관령에 따른다. 또는 정부령에 규정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세법으로는

1)국세기본법 : Undang 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UU No. 28/2007 일반규정과 과세절차 관한 법령

2)소득세법 : Pajak Penghasilan (PPh) / UU No. 36 /2008 인니 소득세법은 한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것으로 말그대로 Pajak(세금) Penghasilan(소득) 이며, 줄여서 PPh 로 표시한다. PPh4(2)(최종분리과세), PPh15(인정과세), PPh19(자산재평가세), PPh21(갑근세), PPh22(수입물품 및 특정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3(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25(법인세 중간예납), PPh26(국외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29(법인세추납) 등 납부하는 세목들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PPh4(2)는 최종분리과세 로 소득세법 제 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PPh21는 소득세법 제 21 조에 규정된 세목으로 급여성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국의 갑근세와 유사하다. PPh 를 PPH 로 표시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PPH는 잘못된 표기로 볼 수 있다. Pajak에 P와 Penghasilan의 P와 h 를 따와서 표시를 하였으므로

PPh 로 표기하는 것이 다른 약자와 혼동이 없을 것이며, 반면 부가세는 PPN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사치세) PPh BM 으로 표시한다. PPh 으로 표시하는 것은 역시 잘 못된 표시인데 Pajak 에서 P 와 Pertambahan 의 P 와 Nilai 의 N을 따왔기에 PPN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 Barang Mewah 를 넣는다면 PPh BM 으로 표시하면 되겠다.

3)부가세법 :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 / UU No 42 /2009

4)재산세법 : Undang-undang Pajak Bumi dan Bangunan (UU PBB) / UU No.12 /1994

5)국세징수법 : Undang-undang Penagihan Pajak dengan Surat Paksa / UU PPSP / Undang-undang No. 19/2000;

6)취득세법 (또는 토지 및 건물 권리 이전에 관한 법) : Undang-undang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UU BPHTB / Undang-undang No. 20/2000

7)조세심판법 : Undang-undang Pengadilan Pajak/UU PP / Undang-undang No. 14/2002

8)인지세법 : Undang-undang Bea Meterai/UU BM / Undang-undang No. 13 / 1985

인도네시아 세법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게스 F/W, 수지와 겨울을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게스가 겨울 추위를 감싸줄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매력의 아우터들을 모아 수지와 함께한 이미지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하이백 카라가 포인트인 코듀로이 소재의 패딩 점퍼를 데님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해 활용도 높은 데일리 룩을 선보였다.

테디베어 코트의 솜 기장 버전을 착용해 최근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겨울 아우터 트렌드를 반영했다.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포근한 보아 소재의 후디는 솜 기장으로 제작, 벨티드 포인트 데님 팬츠와 함께 최상의 궁합을 연출한다.

버커루, 코로나19 이슈 '300일 야상점퍼' 향균성 강조



한세엠케이의 '버커루' 가 실용성과 향균 기능의 '300일 야상 점퍼' 로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매 시즌 베스트셀러 루즈핏 야상 점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루즈핏 스타일과 미니멀한 디자인이다.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실용성과 패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300일 야상 점퍼' 는 레이어드 방식에 따라 1년 365일 중 여름을 제외하고 계절에 구애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슈로 항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해진 분위기를 반영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 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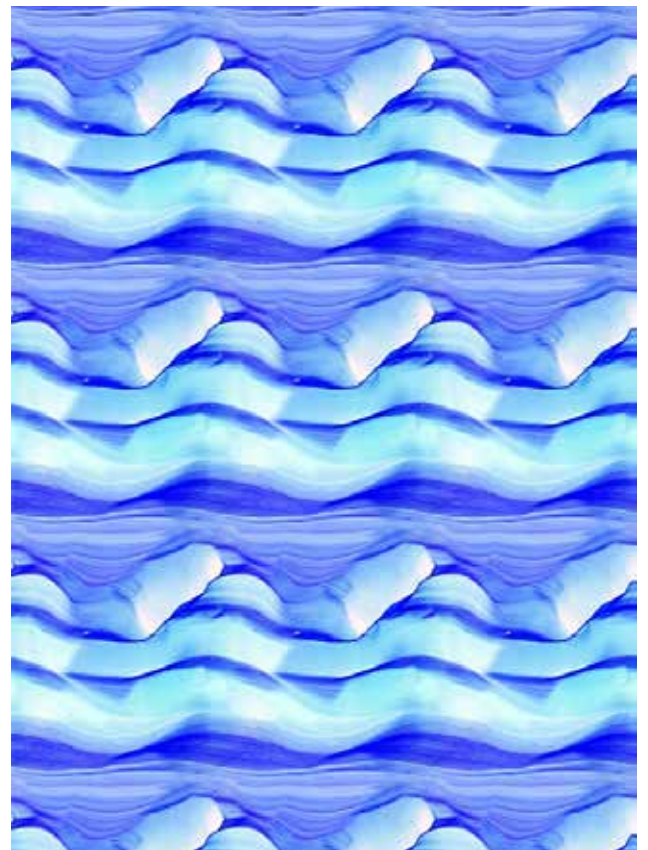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작품명 : 바다 위 빙하 한수연 작



▲ 작품명 : 호랑 배승연 작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팩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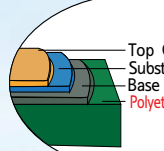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의약외품 허가요건 까다로워 시장 반응 따라잡는데 애로
 “눈 뜨면 면마스크 흡소평 찾고 편성표보고 알람 맞추고...내가 왜 이리저 하면서 또 마스크만 찾고 있다. 코로나로 일상이 자꾸 바뀌고 있다. 나만 유별난가.” (수원맘 모여라 온라인커뮤니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주부들은 올해 가족 마스크 구매를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판매처도 늘었다. 지난 16일 2호선 역내 한 마스크 가판대 앞에는 비말차단 방역 마스크부터 고성능 3중필터 텐탈마스크, 모시마스크 등 각종 마스크가 쌓여 있다. 판매원은 세박스 만원을 외치고 있다. 맞은편 자판기에도 마스크와 손세정제 티슈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텐탈마스크와 KF94를 한 뭉텅이 챙겨 놓고 또 다시 마스크를 검색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글들이 많다.

국내 마스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1월1일~9월16일)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 품목은 1544개로 작년 전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6월 1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는 45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마스크 생산량은 8월 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9월 둘째 주(9.7~9.13)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는 총 2억 7311만개가 생산됐다. 매주 모든 국민이 5개 이상 써도 될 물량이다. 공산품인 패션 마스크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는

“패션마스크 사, 말아?” 국민은 불안하다

패션마스크는 공산품, 정부는 의약외품 권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이드라인 없어



▲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2호선 역내 한 마스크 가판대 앞에는 비말차단 방역 마스크부터 고성능 3중필터 텐탈마스크, 모시마스크 등 각종 마스크가 쌓여 있다. 사진=정정숙 기자

이보다 2~3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인증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KOTITI 시험연구원 왕만식 팀장은 “마스크 시험 성적 의뢰가 코로나 이전보다 월 평균 3~4배가 늘었다”고 전했다.

■패션마스크 성능표준 마련 시급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를 거를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 전염 매개체인 비말(침방울)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필터가 들어간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요즘 시중에 많이 풀리는 패션 마스크는 KC인증을 받은 공산품이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KF80, KF94 등) 및 수술용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KF80은 0.6마이크로

미터(μm) 크기 입자를 80% 차단하고 KF94는 0.4~0.6μm 입자의 94% 이상을 막아준다. 바이러스 입자가 묻은 외부로부터의 비말을 대부분 막아준다는 의미다.

문제는 젊은층 위주로 판매가 급증하는 패션마스크다. 패션마스크는 주로 항균 성능을 가진 기능성 원단으로 만드는데 비말 차단 인증을 받은 별도의 필터가 없어 효과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업계는 “KC인증을 받은 기능성 마스크 중에는 비말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기능성 패션마스크 성능 표준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마스크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의약외

품 검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패션마스크 테스트 항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비말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윤지상 주무관은 “기능성 원단 마스크도 시험 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를 가지고 식약처에 제출하면 의약외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이 기 때문에 허가요건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천으로 된 기능성 소재 마스크 중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신기술 적용한 첨단 마스크 속속 개발

업계는 신소재 개발과 연구에 속도를 붙이며 기능성 마스크를 속속 내놓고 있다. 그 래핀 마스크부터 망사 나노마스크, 은나노 마스크 등 마스크 신시장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툭텍은 자회사 레몬이 나노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나노마스크 ‘에어퀵’을 미 FDA와 유럽 CE인증을 받고 해외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KF인증을 위해 식약처에 의약외품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아이지에스에프(IGS.F)는 그 래핀텍스 마스크와 스플래시 쉴드 그 래핀 마스크 등으로 각각 FDA와 국내 KC인증을 받았다. 박경희 그 래핀텍스 부대표는 “7월말 출시한 그 래핀텍스 마스크는 해외기업과 연간 100만장 이상 물량이 계약돼 있다”며 “국내에서는 KF80 등급으로 식약처 인증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특 징

-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일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 2)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NEW YORK & COMPANY

Giant EXPRESS
 KNOWLEDGE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그래핀텍스, 숨쉬는 마스크... 의류 침구류 등 섬유 라인업 본격화

GSSM은 7일, 그래핀텍스 마스크를 와디즈 2차 펀딩에 선보였다. 기존 그래핀 마스크의 항균력과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KF80 이상의 분진포집효율을 보이고, KF80보다 3배 좋은 호흡을 가능케했다. 세탁 후 수 회 이상 사용 가능하고, 세탁 후 분진포집효율의 감소가 적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지에스에프가 출시한 그래핀텍스는 그래핀을 고순도 싱글레이어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내세워, 마스크에 이어 최근에는 패션 영역의 섬유 라인업을 통해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래핀텍스 마스크는 코로나 19에 대응한 항균 99.9% 기능으로, 호흡이 편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해, 시장확장에 키워드로 부각 수출시장 개척에도 성공하고 있다. 그래핀텍스의 주

요기능은 ▲복원력, 고신도, 통기성을 특징으로 레깅스에 최적화된 원단이다.

▲편발수를 추가한 아우터 ▲친환경 충전제 ▲항균 언더웨어 ▲그래핀텍스 화이버를 통해 보온성과 통기성, 원적외선 방사는 속면을 가능케 하는 숨이나 원단에 ▲정전기 여과방식과 다르게 표면여과 방식으로 오염 물질들이 표면에 축적·필터링 되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며, 정전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고효율 필터링 효과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핀필터 ▲ 기존 생리대 필터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그래핀텍스 부직포 등 패션 의류 영역으로 소재 라인업을 확대했다.

그래핀텍스는 그래핀의 특성상 섬유 표면에 미세물질이나 박테리아 등 오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 일부 부착된 오염물질은 세탁으로 쉽게 제거된다. 아울러 황색포도상균 감소율 99.9%, 폐렴간균 감소율 99.9%와 같이 강력한 항 곰팡이 기능으로 최고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그래핀텍스는 의류기 수준의 89.3% 원적외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일반열보다 80배 깊이 스며들어 세포조직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피부 속 노폐물 및 독성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 촉

진,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외에도 자외선 A & B 차단 기능이나 정전기 방지 등 기능성 섬유의 장점을 보유한다. 일반 PP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공기투과성은 그래핀텍스 마스크 제품을 확장시킨 계기가 됐다. 그래핀텍스 마스크는 KC 인증에 이어 최근 FDA 등록까지 완료, 안전성을 입증시켰다.

그래핀텍스 마스크 프리미엄 라인(G1, G2)과, 셔머라인(GK1, GK2)을 시작으로 최근 GSSM(그래핀 비말 차단 마스크)를 출시했다.

와디즈에서 기능에 열광하는 후기와 함께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또 국내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 이어, 일본 펀딩에도 성공해, 조만간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클라우드 펀딩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외 패션 섬유 시장에서 향후 다각화된 섬유 제품의 라인업에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섬유신문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4. 20 kgf/cm² 중고압 콤프레셔 취급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